東亞日報
夕刊 九月九日(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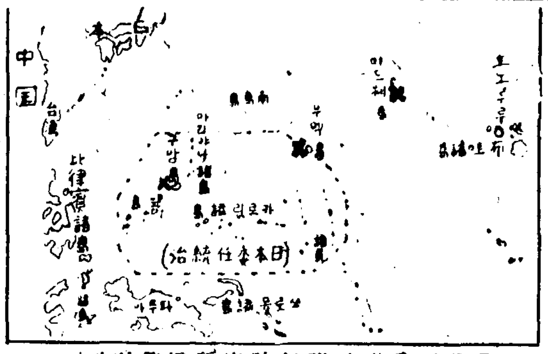
社說

宗教界의 一考를促함
愛와義의精神에歸하라

[illegible]

軍縮會議決裂에備코저
太平洋諸島에武裝
구암、웨、밀웨島에飛行場施設
米、極秘裡建設計劃

【워싱톤 七日發】 米國海軍當局은 來海軍 軍縮會議가 結局은 失敗되어 列國軍擴競爭이 不得已 하리라하고 그리되는때에는 日本은 委任統治諸島에 防備를 施設하게 될것이즉 米國은 이에對抗키爲하야 구암、웨、밀웨等 米領太平洋諸島에 防備施設을 하는同時에 飛行機 發着施設을하려고 極秘裡에 計劃中이바 最近 드디어 이의具體案을 完成하엿다 이것은 米國海軍所屬의 空軍이 太平洋을 橫斷하는境遇에 武裝을 시기려는것으로 此等諸島는 米本國太平洋 岸으로부터 하와이、比律賓諸島로 飛行할때에 約二千二百哩間의 間隔을가진 絕好의 發着連絡場을 이루는것이다。×印은飛行機發着施設



蘇聯極東方面에 海軍力을强化
海港中心、廿六軍艦戰技訓練
潛水艦四隻을新建造

[illegible]

蘇、國境警備隊交替

【新京八日發】 [illegible]

在滿機構問題와 外省側主張
現制度를漸次平常化

【東京電話】 [illegible]

事務的折衝要點

【東京電話】 [illegible]

唯一한政法家 丁茶山先生叙論 (一)
鄭寅普

[illegible]

墺스副總理 暗殺未遂
市一時震駭

【빈八日發聯合】 [illegible]

有吉公使 不遠南京에
汪精衛氏와會見

【上海八日發】 [illegible]

米、織物工罷業 漸次로擴大化!
勞資의對立强硬

【뉴욕八日發聯合】 [illegible]

秘密會議를開催코 蘇、加入問題討議
聯盟理事會第二日

【제네바八日發】 [illegible]

滿洲里驛長 路警에게逮捕
陰謀事件의關係?

【哈爾賓八日發聯合】 [illegible]

總辭職決意 局課長等
拓務案不成되면

【大連九日發】 [illegible]

政友、臨議再要求와 政府側의意嚮
米穀委員會結果보아 政府態度를決定

【東京電話】 [illegible]

西尾參謀長 岡田首相에說明
陸軍側態度에不滿

【東京八日發】 [illegible]

政友臨時總會

【東京電話】 [illegible]

海運問題와 日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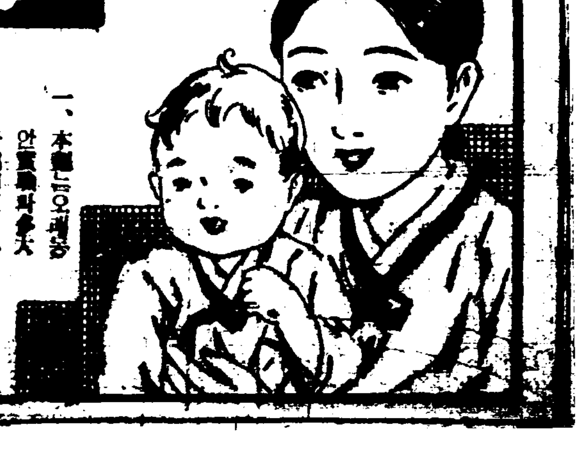
【바타비아八日發】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今日本紙四面

泄瀉腹痛 腸胃疾患에
泄瀉·腹痛·腸胃加答兒의速治良藥
健胃固腸丸



一、本劑는오래동안實驗과多大한研究의結果인 胃腸藥으로 泄瀉腹痛胃腸病에代表的名藥입니다
二、더욱本劑는잘들리기때문에 類似品이만흐니 사실때에 반드시 健胃固腸丸이라고 指名하야주시요

藥價 廿錠 一圓 / 五十錠 二圓 / 三圓 / 五圓 / 十圓

小兒에게는專門의 小兒腸藥丸이有함

服用하기쉽고便利한 健胃固腸錠
泄瀉腹痛에 一回三錠
腸胃衰弱에 一回一錠

錠劑의藥價改定
價格半減에相當한 內容增量을斷行한
新藥價
金參拾錢(舊十二錠入)은二十一錠入
金五拾錢(舊二十一錠入)은四十八錠入
金壹圓(舊四十八錠入)은百二十錠入
金參圓(舊二百錠入)은五百錠入

鹽谷同春堂

山崩으로鐵道不通 國際橋梁도流失
邑內에浸水家屋도數百戶
·會寧地方의暴雨再襲

【회령지국전보】 八일오후 三시경부터 재차습래한 폭풍우로 인하야 상삼봉(上三峯) 신전(新田)역간에 산이 무너저서 회령이북 철도는 불통이 되엇다. 계림선(鷄林線)도 회령선이 범람되어 불통이 되엇다.

회령에서 두만강류역에잇는 종성(鍾城) 수구포(水口浦) 동관진(潼關鎭)에는 침수가옥이 수백호에달한다.

【회령지국전보】 폭풍우의 계속은 의연 긔렬하야 금일 오전七시五十분 회령으로부터 간도에 통하는국제교(國際橋)인화선교(和[illegible])는 드디어유실(流失)되고 마럿다.

【회령지국전보】 폭우는 잠시도 쉬지안코 그대로 나리고잇으므로 두만강(豆滿江)은 시시각각으로 증수되어 [illegible] 계림선(鷄林線)의 선로의 四개소의 철교는 三백미돌이상이 결궤에 빠지엇다. 유선(雄仙)등 二개소의유실가옥은 三十여호에 달하고 벽성평(碧城坪)에 二백여호가 침수되엇다. 그리고각처의 교통이 두절되엇다한다.

를 건너다가 또하병이 경방에 떠밀려서 사망하엿다. 아즉 시체는 발견치못하엿으나 五등 고병옥(高炳[illegible])군(二二)으로 판명되엇다. 六七양일간 회령부근일대에서 피해된것을 조사하면

死者二名▲倒壞家屋七棟▲大小橋梁流失七▲負傷者二十一名▲流失豚數四八頭▲其他損害는아직未詳

羅津에도水亂 浸水百九十戶
清津間交通杜絶

【라진지국전보】 八일오후 六시부터 九일오전 五시까지 쏘다진 폭우로 말미암아 나진(羅津)시중을 비롯하야 침수가옥은 一백九十호, 도피 유실가옥은 九호에 달하엿다한다. 그리고 나진, 청진(淸津)간의 자동차통행도 불통중이라 폭우는 아직도 계속중이라한다.

會寧水害後報

【회령】 회령 등수동은 마치대비가 개임을따라 계림선(鷄林線)열차전부가 八일은 [illegible] 개통되게 되엇고 七일오전 [illegible] 회령교 피난중이라 한다.

出漁船 八十隻失踪

【전중대분九일발】 대분현(大分縣)지방에서는 八일밤부터 九일 아츰까지 폭풍우로 말미암아 좌하(佐賀)의 [illegible] 어선 八十척은 八일밤 풍후수도(豐後水道)방면해상에서 오중어(烏賊)잡이를 하던 [illegible] 행방불명이 되엇다. 이 급보에 접한 [illegible] 출동하엿으나 아직 해상이 험하야 아직도(日振丸)에 [illegible]중이라 한다.

重要議案等上程 長老總會大緊張
◇七十一件의討議案

【평양】 회의를 진행중에 잇는 제二十三회 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에 상정되는 토의안은 八일밤까지 제출되어 각부(各部)로나누어 토의에 부치엇는데 그전부가 七十一건 이라한다.

그중 중요한 몇가지를 들건대 첫재는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기관으로 조직된 조선예수교 련합공의회의 해소(解消)의 제창이다. 이는 결국 대국을보는 입장에서 장로교가 감리교와는 우의적 연락조차 끊으려는 것이 아닌가 주목되는데 이제창은 ▲平北老會, 義山老會, 平西老會, 黃海老會 에서 각기 제창한것으로 이 토의에는 一대 파란을 일으키지 안흘까 주목을 끌고잇다. 그리고 여기 제출된의안중 특수한것은 교회나 노회와 관계가없는 단체로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건백서가 잇다. 이것은 예수교의 성경과 찬송가를 통일된 한글새철자법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는것인데 이 총회에서 이 요망을 채택하려는지 여기도 크게주목할 가치가잇다. 그다음 으로는 의무교육실시 요망의 건의도 잇는데 七十一건의 토의안중에 이상중요한 몇가지를 골라보면 다음과같다.

一、安州老會分立要望(安州)
一、朝鮮예수교聯合公議會解消, 또는 脫退, 廢止의 提唱(平北老會, 義山老會, 平西老會, 黃海老會)
一、高等農事學院設立要望 [illegible] 昇給要望(返却)
一、信川敎會分立要望(同敎會分立派)
一、婚姻에關한 規則을 廢하고 解放要望(咸北老會)
一、聖經과 讃頌歌를 한글新綴字法으로 改正要望의 建白書(朝鮮語學會)

開城四部監理教會와 好壽敦基青의赤誠
八十여원과 의복을 지국에

【개성】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앙(中央)등 감리교 四부교회(監理敎會)에서는 [illegible] 각각열렬히 의연금을 거두어 수재동포를 구제코저 [illegible] 호수돈녀자고등보통학교(好壽敦)와 [illegible] 청년회(基督靑年會)에서도 [illegible] 모아가지고 온 것이 [illegible] 의복(衣服)四十여점 [illegible] 지국에 보내달라고 의뢰하엿다.

大聖寺被害 二百萬圓

【金澤電通】 대성사(大聖寺)소실에는 약二백만원에 달할 모양이다. 그리고 소실호수는 十六개정 약五백호로 이재민은 [illegible]

◇……사람 부르는 들 국화……◇

三南豪雨는颱風關係 雨量은洛東江에最多
압으로일기는개일터이나 朝夕으로寒冷해진다

【仁川觀測所 發表】 태풍(颱風)은 구주(九州)를 상륙하야 오늘아침(九일) 산음도(山陰道)에 七四二미리를 보이엇으나 세력이 다소감퇴되고 잇는중이다. 태풍의 경과지인 구주를 중심으로 풍우가 쾌심하엿는데 우량은 조선해협을 중심으로하여

嚴原 二〇四미리
釜山 一八二미리
馬山 一二二미리
大邱 三一미리

로 낙동강 하류가 제일 만타. 일본내지의 강우는 구주지방과 산음도방면이 심한편으로 곳곳에 백미리이상 백五十미리의 곳이 만으며 기타는 五十미리를 보엿다.

폭풍은 구주산음도에 제일강하야 일본 중서부(中西部)는 그영향이 쾌심하엿다. 그러나 이외로 일본해 서편에 一백四十미리 이내의 [illegible] 저기압이 발생하엿다.

이 저기압과 산음도 태풍의 [illegible] 세력이강한 七백六十미리의 고기압이 태풍의 진행을 [illegible] 잇으므로 태풍의 진행속도가 더대지고 동북(東北)으로 진행중이다.

조선에는 진작 태풍이 감하야 중국(中國)지방에 고기압이 잇으므로 일기는 조흐나 조석으로 일기는 추울것이다.

激浪에救命艇顚覆 乘客燒死者二百名
石油탕크에落雷로發火된것
大西洋上의一大悲劇

【뉴육八일발전통】 기보(旣報) 뉴욕항으로 항행중에 잇엇던 [illegible] 외륜 한행중에 화재가일어난 [illegible]호는 「하바나」에서 승객 三백十八명이 승선하여 잇엇는데 그중二백명은 사망한것으로 판정되엇다. 선장 【로바트·윌모트】씨는 [illegible] 심장마비를 일으키어 순직하엿다. 일편구명정 무어재로 승객다수를 실리고 피난하엿는바 때마침 거랑에 전복되어 참사된 모양이며 화재의 원인은 석유탕크에 락뢰된것이라한다.

百八十個 屍體漂着

【앗슈베리팍八일발전통】 八일오전七시까지 [illegible] 판명된 것은 다음과갈다.
▲發見屍體(引揚漂着者)百八十三名
▲行方不明 五十名
▲生存者 三百二十五名

音樂傳道會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주최의 음악전도회(音樂傳道會)는 九일 오후 八시부터 부내 탑골공원(塔洞公園)에서 개최하다고한다. 일반은 다수히 참석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第十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 各地에서十八校參加
中央基青主催·本社後援
十二日부터四日間開催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주최와 본사후원의 제十회 전조선중등학교 농구선수권대회(籠球選手權大會)는 래十二일부터 十三、十四、十五의 四일간 매일오후두시반부터 중앙청년회관 코트에서 거행하리라는데 제一회의 입장식은 매일 二十전에 학생은 十전이오 참가학교와 단체는 五전씩이다. 조선의 농구계를 오늘에 이르도록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기독교청년회의 이사업이 [illegible] 역사적 패권을 목표로 [illegible] 흥미를 끌게될것이라 한다.

게임의順序

▲第一日 (十二日=水) 入場式 午後二時에 中學部 第一回戰 一、二、三、四
▲第二日 (十三日=木) 中學部 第二回戰 [illegible]
▲第三日 (十四日=金) 中學部 第二回戰 九、十、十一 專門部 一回戰 十二
▲第四日 (十五日=土) 中學部 準決勝十三、十四 專門部決勝 中學部決勝

專門校對陣

延專, 法專 (12) — 世專 (15)

中學部對陣

善隣·養正 (1), 普成·徽新 (2), 協實·海州 (3), 靑學·道商 (4), 二高·大東 (5), 中東·京實 (6), 徽文·崇實 (7), 一高
1·2 → 8, 3·4 → 9, 5·6 → 10, 7·一高 → 11, 8·9 → 13, 10·11 → 14, 13·14 → 16

白馬의女將軍 ·王芳畢竟被捉
◇安東縣에潛伏中

【안동현】 비록 몸은 여자이지마는 힌말을 놉히 타고 부하수十명을 거느리고 만주벌판을 달리며 반만항일(反滿抗日)운동에 활동하는 백마의 여장군 왕방(王芳)(二一)이 六일밤十一시五十분 시내현전가(縣前街)에서 안동경찰서원에게 잡히엇다. 왕방은 관전현(寬甸縣)양목천(楊木川) 래생으로 남편양우림(楊雨霖)등과 행동을 가치하야 반만항일운동에 작용하여왓엇는데 작년八월만주군의 토벌로 일시 패잔의 쓴 잔을 마시고 [illegible]에 피신하엿엇으나 신변이 위험함을 느끼어 봉천(奉天)을 경유 산해관(山海關)방면을 돌아 다시 금월六일 봉천으로부터 안동에 잠입하야 현전가 왕화성(王和成)의아편집 나회경(羅會慶)에 잠복하야 안동경찰서원과 동경찰서원 二명이 체포한것으로 혹시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중요한 사명을 받어가지고 들어온것이나 아닌가하야 엄중취조중이다.

勉勵青年會協議會召集

【평양】 제一회 전조선 면려회 四년대회의 뒤를 니어 七일오전 九시부터 서문밖예배당에서 면려청년회협의회를 소집하고 역원개선이 잇엇다. 이 협의회는 각대표자二백여명의 회합으로 四년대회는 수양을 목표로 함이오 이협의회는 모든일을 집행하는기관이되어 잇다고한다. 신임역원은 다음과 갈다.

會長 [illegible] 副會長 金[illegible] 總務 安大善, 李大偉 書記 李良勳, 金保麟 農村部長 金斗七 靑年部長 崔成坤 讀書部長 朴碩伐 少年部長 李[illegible] 會計 李永秦 [illegible] 中央委員 [illegible] 安大善, 李良勳, 金保麟, 金[illegible]

八日의經過

【평양】 七일밤부터 개막된 제二十三회 장로교총회는 회의를 계속하는중인데 八일 오후까지에는 임원개선, 법리, 재무, 교육등 [illegible] 각부에 부치기로 되엿다고 한다.
會長李仁植 副會長金[illegible] 書記洪鍾[illegible] 副書記[illegible] 會計[illegible]

石川縣大火 三百五十戶燒失
工兵隊出動鎭火中

【대성사(大聖寺)—전통동화】 九일오전二시四十분경에 석천현강소군 대성사정자신정(石川縣江沼郡大聖寺町字新町) [illegible]에서 발화하야 때마침불든 폭풍에 화세는 西방에 만연되어 中町, 魚町, 馬場町, 入間町, 中新町, 本町, 錦町, 鷹町, 觀音町, 山下町 등 五개정에 연소되어 농사물검사소(農產物檢査所) 석천현 토목출장소 대성사 [illegible] 개수사무소 재판소 대성사 출장소 공립시험장 등 [illegible] 오전五시반에 이르도록 계속연소중인데 현재까지 약 三백五十호를 소실하엿는데 대성사경찰서에서는 [illegible] 공병대(工兵隊)의 출동을 신청하엿다한다.

【금택(金澤)전통】 대성사정의 대화는 현재까지 [illegible] 보이지안코 오전七시반까지에 五백여호를 소진하고 목하 성히연소중이라한다.

◇大火公報

【대성사전통】 九일오전九시반경 내무성 경보국착보에 의하면 九일오전二시五十분 현하대성사정(大聖寺町)[illegible]으로부터 발화하야 七시까지 소실한 호수는 약 四백호라한다. 그의 소실된 중요한 건물은 학교 一교와 병원一동 재판소 一동, 신사一동, 역장一동등으로 [illegible] 바람이 강하야 진화의 희망이 없는데 인명의 사상도 방금 취조중이라한다.

運動競技

滿鐵과朝鐵 뽀트레스擧行
來一日漢江에서

朝鮮과滿洲漕艇界의 覇權者 滿鐵對朝鮮鐵道 兩뽀트레스對抗레스는 來十月一日 漢江人道橋아래 一千三百米코—스에서 擧行하기로되엇다. 當日은 朝鮮神宮競技뽀트레스도 行할터이므로 이에잇이어 午前에 滿鐵軍, 午後에 固定席競漕를 行할터인데 朝鮮滿洲對抗뽀트레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神宮卓球豫選

朝鮮卓協 主催로 朝鮮神宮卓球京城府 男子一般 豫選을 九月十六日 午前十時 大學豫科 卓球室에서 行할터인데 申請은 十三日까지 卓球協會內 卓協으로가라 고한다. 여기서 뽑을 人員은十五名.

滿洲와對抗할 朝鮮陸上陣

朝鮮과 滿洲對抗陸上競技는 十月中旬 京城에서 行할터인데 全京城選手第一推薦을 다음과 갈이 하엿으며 練習은 每日午後[illegible]부터 [illegible]에서 行하는데 그 指導員中에 [illegible]氏가 잇다.

山本、岩崎、福田、西村、[illegible]井、白石、佐古、西村、上原(以上[illegible])▲[illegible]、氏家、[illegible]長春、宮武、[illegible](以上[illegible])▲金[illegible]民、池[illegible]、[illegible]、金仁[illegible]、崔仁浩、小寺、[illegible](以上에 들래림)▲山中、[illegible]、[illegible]邊、家永(以上[illegible])▲[illegible](徽中)、李乙[illegible]、金[illegible]元、[illegible]、以上(養正)▲本町、大門以上(京商)

女子籠球經過

日本籠協會朝鮮支部 主催의 第二回 女子籠球選手權大會는 八日에準決勝戰을 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한바 그결과는다음과갈다.

女演 21 (11—10, 10—17) 17 二高
一高 20 (10—6, 10—11) 17 淑明

天氣豫報

低氣壓中心은 日本海中部에 잇어서 七〇〇미리를 보이고 東北東으로 進하고잇다. 昨日 中國東南中部에잇든 颱風은 昨夜九州地方을 通過하야서 今朝는 日本海中部에잇고 高氣壓은 오호스크海와 中國北部에 퍼지고잇다. 朝鮮海峽과 北東岸은 비가오고 잇다. 其他는 天氣가 좃코 一般으로 北風이 불고잇다. 明日도 天氣는 조흘 듯.

西風後晴

昨八日氣溫 最高 二五度七 最低 一七度六

★그날그날★

陽九月十日 (月曜日) 陰(大)八月二日(甲申)
日出前六、〇九 日入後六、五〇
月出前七、一〇 月入後七、〇五
仁川 前 六、〇〇 後 六、一五
釜山 前 九、〇五 後 九、二〇
鎭南浦 前 一〇、〇〇 後 一〇、二〇

◇暴風警報

九日 午前九時 仁川觀測所發表 바람이 强하겟다. 低氣壓은 深厚하다. 降雨가잇다. 咸北、咸南、江原、慶北、全南沿岸은 警戒하라.

朝鮮青年志願 士官校가歡迎
◇明年度入學案內發表

명년도 육군 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와 유년학교(幼年學校)에서는 조선청년으로 이미 입학하여 잇는자도 잇고 종래의 성적도 조흐므로 조선 청년 소년들 크게환영하고 잇는중인데 입학지원의 요령은 다음과갈다 한다.

一、採用人員
陸軍士官學校豫科 約四百四十七名
東京陸軍幼年學校 約百五十名

一、志願者資格
▲年齡 士官學校 (大正四年四月二日부터 大正八年 四月一日까지 出生者) 幼年學校(大正九年四月二日로 同十一年 四月一日까지 出生者)
▲學力 士官學校는中學校 第四學年 第二學期 修業程度, 幼年學校는中學校 第一學年 第二學期 修業程度
▲不採用者 1、有妻者 2、破產宣告를 受하고 復權前의者 3、禁錮以上의 刑에 處한者 4、品行不良者

三、出願
願書用紙(朝鮮에서는 龍山第二十師團司令部, 羅南第十九師團司令部, 東京서는 教育總監部, 東京士官學校, 東京幼年學校에 請求)에 記入하야 九月二十一日까지 幼年學校는 十月三十一日까지 提出할것

四、採用檢查
▲身體檢查=(京城, 平壤, 羅南, 咸興)
▲學科試驗(身體檢查合格者에게)
士官學校=代數, 化學, 外國語, 物理, 國語漢文, 地理, 歷史, 幾何, 作文
幼年學校=歷史, 地理, 理科, 數學, 國語, 作文

그리고 작년도에 지원자가 다수에 달하엿는데 그중조선사람은 약二十명이 응모하야 二명이 합격되엇다한다. 이에 [illegible] 용산제二十사단사령부에 문의하는것이 조켓다 한다.

淋病 治療와性病豫防에絕對權威
グラオンギン (부라온긴)
ケンゴール (켄고-루)
新發賣 (試藥品) 一圓九十錢
日東製藥合名會社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話一一五九

淋疾皮梅 專門 チエ京城醫院

朝鮮語學雜誌 正音 第四號
朝鮮語學研究會

태극성광목 강씨고른특한광목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產婦人科 醫學博士 橋本吉蔵

大鋸工 武村商店

チツマ 廣告 宇沢商店

恩給 鄭商會

肺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第一高等簿記學會

新舞臺 開城秋期訪問大公演 高麗青年會館에서

本社京販

桃花劇場

아메리카洲 全十卷
肉彈의王者 全七卷
無敵다ー산 全十卷

團成社

訃告
洪起完王大夫人清州韓氏以宿患今月六日(陰七月二十八日)午前[illegible]時別世玆以訃告
永訣式九月十日[illegible]
葬地[illegible]
昭和九年九月六日
嗣子 洪起完

三南水災義捐金品

【本社接受＝九日正午까지整理分】

現金 貳萬六千六百圓・物品 六萬八千點

◎金五拾八圓五拾四錢也 利川支局取扱

【內譯】 參拾六圓貳拾六錢 利川監理敎會內婦人宣敎會及엡윗靑年會 五圓 利川商工會 四圓 朝鮮商業銀行利川支店職員一同 貳圓 成業社利川出張所 金丙七 貳圓 株式會社利川產業社社員一同 壹圓 利川興業株式會社員一同 壹圓 利川靑年團 鄭圭昌 五拾錢 利川 姜奉萬 四拾錢 利川普通學校生徒 徐男 貳拾錢 李在淑 貳拾錢 辛乙順 拾錢 辛英熙 同 金基順 同 趙讚禮 同 朴誠培 同 兪正玉 同 金貞順 同 林晋全 同 沈贊蘭 同 李順男 同 鄭殷奉 同 金鍾順 同 李順在 同 劉順伊 同 李玉天 同 李順在 同 朴勝珠 同 兪義淑 拾錢 韓今順 同 洪順男 同 李輔晋 同 曹榮子 同 曹敬子 同 吳福在 同 鄭貞淑 同 趙貞愛 七錢 李順分 六錢 金鍾淑 五錢 金天順 同 金德分 同 李輔允 同 張今禮 同 李貞 同 李慶植 同 柳福順 同 金晋順 同 金仁植 同 金順伊 同 具順會 同 李英子 同 金晋全 同 金在順 同 河永子 同 朴春姬 同 李富田 同 崔淑 同 金小天 同 洪乙善 同 崔順淳 同 鄭俊成 同 李永禮 同 金俊會 同 姜貴男 同 尹泰烈 同 李能植

拾錢 同 韓正洙 拾錢 同 李景涉 五錢 同 金世昌 五錢 同 朴春洙

◎金四圓四拾錢也 安岳支局四次取扱分

【內譯】 壹圓 安新普校二學年擔任敎師 壹圓 同 四學年擔任敎師 參拾五錢 同 三學年生六人 貳圓五錢 同 同生徒二十人

◎金四圓也 茂橋支局取扱分

【內譯】 壹圓五拾錢 徐珉濠 五拾錢 同 白敬寅 參拾錢 同 尹風 五拾錢 同 金宗大 貳拾錢 同 兪澈洙 壹圓 同 鄭石童

◎金六圓六拾錢也 茂山支局取扱 (除送料貳拾錢 賣入金六圓四拾錢也)

▲六圓六拾錢 茂山製材所從業員一同

【內譯】 孫初吉、金秉洙、金光連、尹守鉉、嚴基俊、李斗興、金仲吉、金昌烈、金明振、崔永高、李秀學、嚴竹川、白明伍、鄭允相、朴宗元、朴泰興、朴龍福、南元閔、李斗弘、金泰化、南星俊、柳昌浩、金文植、崔鳳鉉、許暎、金泰益、文竹松、李虎松、嚴乙、崔龍珠、崔太允、金龍珠、申龍燮、李秀吉、金成龍、金鎭三、趙陽律、金永春、金昌奎、南相哲、鄭兆春、張乃善、朴亨一、朴龍岩、柳秀千、鄭和潤、任鳳鎭、尹甲孫、金振泰、韓龍珠、蔡秀鉉、尹得泰、許秀鎭、金明和、趙東西、兪英涉、李長連、金仁守、李大郁、李東洽、趙吉龍、張泰煥、金善玉、金仁秀、許應哲、趙國武

◎金四圓也 各個別義捐額

【內容】 三圓 牙山郡屯浦聖公會一同 壹圓 黃州郡兼二浦邑旭町六 梅崙永春

◎金四拾參圓九拾錢也 海南支局取扱(第一回)

▲七圓四拾五錢 三山面院津基督敎會 (說明四十七錢除賣入金四十三圓四十三錢也)

【內譯】 四圓七錢 基督靑年勉勵會 一同 九拾錢 基督少女會 貳圓參錢 基督敎會 四拾五錢 基督少年會

▲五圓也 山二面草松里基督敎會一同

▲四拾九錢也 海南邑海町自治團一同

▲拾貳圓五拾五錢也 海南邑基督會一同

【內譯】 壹圓 尹英燮 壹圓 李連順 壹圓 金東洙 壹圓 曹銀燦 壹圓 金根培 壹圓 金仁淑 壹圓 宋實淑 五拾錢 金点來 五拾錢 金昌在 五拾錢 강강레 五拾錢 崔良禮 五拾錢 리정심 五拾錢 光州旭町 金順愛 六拾錢 海南邑內 ᄉ슌하 參拾錢 木浦榮町 鄭文善 貳拾錢 海南邑內 金勳偵 拾錢 李福德 拾錢 천양심 拾錢 맹복동모친 拾錢 김두재모친 拾錢 유양레 拾錢 조처레 拾錢 김소마 拾錢 정홍레 五錢 염성레 五錢 김기심 五錢 김선레 五錢 정대아 五錢 양소아 五錢 김순님 五錢 천수아 五錢 리봇레 五錢 리지레 壹圓拾六錢 日學校生一同 幼年主 拾四圓參拾五錢 基督靑年勉勵會音樂歌劇會收入分 海南邑 五拾錢 金重玉 五拾錢 金漢植 參拾錢 金洙萬 參拾錢 金鍾文 貳拾錢 朴俊萬 貳拾錢 李榮植 拾五錢 鄭大玉 拾錢 安英海 拾錢 金琪徹

現金小計 壹百貳拾圓七拾七錢也

累計金 貳萬六千六百六拾壹圓七拾七錢也

▲物品壹百參拾壹點 長津支局取扱

【內譯】 衣類一件 長津邑彩霞町古 千明月 一件 同 李金女 一件 同 趙翼頌 一件 同 李元琵 一件 同 全龍洙 一件 同 任鳳化 一件 同 金姓女 一件 同 金萬淳 一件 同 裵光洙 一件 同 韓金男 一件 同 朴必淵 一件 同 韓完眞 一件 同 李明石 一件 同 李永九 一件 同 南學永 一件 同 李曾孫 一件 同 韓熙乾 一件 同 鄭允浩 一件 同 金永淳 一件 同 樋口氏 一件 同 崔忠燮 一件 同 蔡思鉉 一件 同 金鳳九 一件 同 李在亨 一件 同 南聖姬 二件 同 吳春仙 二件 同 李厚孫 一件 同 明詰母 一件 同 安正姬 一件 同 楊金順 一件 同 張泰姬 一件 同 孔世眞 一件 同 楊炳洙 一件 同 金道信 一件 同 朱順福 一件 同 韓雲仙 一件 同 李順孫 一件 同 尹雙女 一件 同 南仙姬 一件 同 朱順賓 一件 同 李尙洙 一件 同 李馬尼阿 二件 同 李國龍 一件 同 楊文姬 一件 同 楊邊淳 一件 同 金姸姬 一件 同 李今女 一件 同 金質乾 一件 同 朴成龍 四件 同 李弘吉 十三件 同 金一甫 廣木五尺 同 禹南璡 衣類十件 長津下碣市 禹南璡 十件 同 禹南珪 十件 同 崔서운 十件 同

▲物品壹百七拾七點 高敞支局取扱

【內譯】 鍾紳九膏藥百包 高敞邑內 海東藥局 三件 砂川婦人會 柳昌海 衣類卅一件 同 耶穌敎會 一件 同 崔安順 三件 同 鄭槐峙

二件 同 閔海淑 二件 同 卿이운 一件 同 邊成東 二件 同 高金孝 一件 同 韓妙順 二件 同 鄭芝連 一件 同 鄭述姬 一件 同 金孟順 二件 同 徐相德 一件 同 朴德善 七件 同 朴鳳妙 三件 同 羅淑 一件 同 金漢卿 一件 同 李相宰 三件 同 愼悌男 一件 同 朱成岩 五件 同 愼安利 一件 同 愼貞淑 一件 同 愼重賢

▲物品六拾九點 安岳支局取扱

【內譯】 白米一斗五升三合 安岳普校三學年生 十五人分 小米一斗三合 同 十八人分 衣類十三件 同 十三人分 白米二升五分 四學年生 四人分 小米二升 同 三人分 衣類十八件 同 十八人分

▲物品百六點 洪川支局取扱

【內譯】 衣類七三件 洪川邑 朴文姬 三三件 同 李東奭

▲物品五點 海南支局取扱

【內譯】 衣類一件 海南 金根培 一件 同 金昌在 白木三尺 同 이봉만모친

▲物品貳百九點 各個別取扱

【內譯】 衣類四五件 羅津邑長老敎會婦人會一同 (羅津支局取扱) 고무신五足 同 衣類六十件 江西郡水山面可帆里敎會及江西面鶴洞敎會 (支局取扱) 五五件 利川監理敎會 內婦人宣敎會及엡윗靑年會 (支局取扱) 十九件 晋州邑平安町佛敎堂信徒有志一同 (支局取扱) 廿五件 京城蓬萊町萬里峴女子夜學校一同

物品小計 六百九拾點也

累計 六萬八千貳拾五點也

社會事業協會取扱分 (九月七日까지)

小計 貳百九拾六圓四拾參錢也

累計 拾四萬六千七百五拾壹圓八拾九錢

黃海道三郡에亘해 栗大의雨雹暴注

◇黃州、載寧、兼二浦等地에

農作物의被害도莫大

【해주】 황해도(黃海道)一대에도 오래동안 계속한 장마와 지난八월五일부터 六일까지 일어난 폭풍우로 인하야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든중 또다시 지난七일정오부터 약 두시간을 계속하야 황주(黃州) 재령(載寧) 겸이포(兼二浦)등지에 우리알갓흔 우박이 내리엇다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방금 조사중이므로 자세한것은 알수없으나 농작물은 전멸상태라 한다.

軌道서자다가 兩名이死傷

瑚璉川鐵橋附近서

【함흥】 지난八일 오전三시五十二분에 함흥역에 도착하는 신북청역 출발화물열차 五四八호가 본궁역을 지나 오전三시四十분에 호련천철교(瑚璉川鐵橋)부근을 통과하는중 레일우에서 자든두사람을 다치어 신흥정(新興町)七八번지 고진종(高鎭宗)(二〇)은 즉사하고 동리 임종연(林宗衍)(二〇)은 머리에 타박상을 당하여 거의죽게되엇다는데 그와갈이 선로에서 자게된것은 호련천에 밤중에 세사람이 쇠채내(鐵)잡으러 나갓다가 한사람은 쇠채내 그물을 가보고 두사람은 피곤이 선로에서 자다가 그와갈이 봉변을 당한것이라한다.

江界連夜火災

【강계】 지난四일새벽에 강계군강계읍 동부동(江界郡江界邑東部洞)리성국(李聖國)의집 파자가마에서 발화하엿는바 강계소방대의 출동으로 곧진화되엿는바 손해액은 약백원여라한다.

그이튼날인 지난五일밤 열시반경에 강계읍 서부동(西部洞)평안자동차상회(平安自動車商會)수선공장에서 발화하야 대소동을 이르키엇는바 소방조의 극력활동으로 곧진화는 되엿으나 부근이 공장지대이요 판잣집이든 키엇는바 발화의 원인은 그날 자동차의 정기사가 잇는때게로 방새여가며 수선하든중 공장안 휘발유에서 갑작이 발화하야 그같이 큰소동을 이른것이라한다.

殊常한靑年 夜半에脫走

烏致院署에突發事

【조치원】 당지경찰서에서는 지난四일에 급작이 수상한인물을 체포하야 방에유치하엿든바 그날밤 간수의 눈을피하야 도주한바 방지경찰은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비상이심려하야 사상에관련한 중대범인이 아닌가하고 총출동하야 수색중이나 범인은 아직까지도 체포치 못하엿다한다.

十一年勤續敎員 表彰式擧行

【광주】 十一개 성상의 긴세월을 꾸준이 교육사업에 헌신적으로 지력하여온 우 의미깊은 기념식이 잇엇다＝광주공립 제二보통학교의 김보현(金保鉉)선생은 그 학교에 취임한지 十一개성상의 긴세월동안 성심성의로 아동교육에 진력하엿으므로 지난六일 오후五시에 학교당국과 학부형회와 지방유지등이 연합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학부형회장 문모(文鄭某)씨로부터 표창장과 기념품으로 금시계 一개를 진정하엿다고한다。

(사진은金保鉉先生)

鐵道線路通行者 徹底取締를嚴示

◇五일간 방지 데이를 정하고

大田鐵道區內에施行

【대전】 대전철도(大田鐵道)사무소 에서는 근래 선로 통행자가 격증하야 열차운전의 위험함은 조해함뿐 아니라 이에 따러 늬사상자와 열차방해사고가 빈발하므로 오는 十一일부터 十五일까지 동해방지 삐라를 배포하야 철저히 취체를 시행 하리라한다.

咸興金組新築

【함흥】 함흥금융조합은 대정八년 창립이래 그성적이 양호하야 현재조합원이 八백二명에 저금액이 六十만원에 달하고 대출이 四十五만원에 달하는 함흥시민 금융기관으로 현재 금정(錦町)에잇는 사무소로서는 도저히 그업무를 수행할수없슴으로 함흥시의 중심이오 번영의 초점인 군영통(軍營通)一정목에 대지를 구입하고 총공비 一만六천三백원으로 총건평 백여평되는 연와二층을 五월상순에 기공하야 지난 七일에 성대히 상량식을 거행하고 오는十월중순에 준공하리라 한다.

平壤에火災 松竹旅館全燒

二時間이나電車不通

【평양】 七일 오후 八시四十분 부내 송영리(松營里)송죽여관(松竹館)에서 불이나서 二층집을 전소하고 동 十시 十五분에 진화되엇는데 그불통에는 전차가 이때문에 두시간이나 운전정지가 되는 대혼잡을 이루엇으며 손해는 四천三백원이라는바 원인은 온돌을 피처고 불을 너무 지나치게 때까닭이라고 한다.

平壤史話의밤盛況

송도고보 동창회 평양지부 주최의 본사평양지국후원의 평양사화의밤은 예정대로八일 오후八시 백선행기념관에서 개최되엇다。연사 이선근(李瑄根)씨의 大院君과 人事行政, 最近朝鮮과 袁世凱及 袁氏 라는 연제아래 근세 조선역사를 가장 흥미적으로 가장 명료한 설명을 부처서 회집한 一천여명 청중에게 한없는 근대조선의 인식을 새롭게 하엿다.

會合

◎論山郡敎育硏究會 去七日論山公普校에서 開催

◎論城敎育會總會 同日同校에서 開催

阿片密輸犯 南浦署檢擧

【진남포】 지난四일 정오경에 부내 삼화공원(三和公園)앞 대로에 어떤자가 배회하므로 남포서원이 거동이 수상하야 본서로 인치취조한결과 이자는 평양부서성리(平壤府西城里)에 사는 이정판(李政判)(三〇)으로 공범인 함남 장진군 중남면 구천리(咸南長津郡中南面九川里) 장영수(張永秀)(三〇)이가 저번 간도(間島)방면으로부터 다량에 아편을 수입하야 지난 一일 평양으로 와서 매각하려고 배회하든중 전기 이정판이 팔겟다하야 아편 약 八백그람에(시가약五백여원)을 가지고 진남포에와서 전기 삼화공원 부근으로 배회하든중 체포되엇다고 한다. 또한 공범이장영수는 사실이 발각되엿음으로 지난 四일경 성천방면으로 도주한것을 체포압래하야 범인은 지난七일 평양 검사국으로 넘기엇다고 한다.

滿洲移住民 論山에二十五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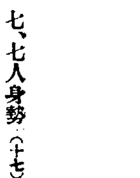
【논산】 저번 수해이재민을 만주로 이민시키겟다고 발표하자 집과 세간을 잃고 방황하든 이재민들이 서로다투어 만주로 가고저 지원한 사람이 논산군(論山郡)에서만 벌서 一백六十여호나 된다는바 당국에서는 그중에서 二十五호만 선발하야 보내주기로 한다고 한다.

簡易校職員講習

【광주】 전남도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교양을 하기위하야 四十四개소와 간이학교를 신설하엿다고한은 본지에 기보하엿거니와 지난五일에는 그학교 교원전부 四十四명을 광주농업학교에 모아다가 직업파 교육강습회를 개최하엿다는데 기한은 오는十八일까지라고한다.

黑頭巾 (87)

尹白南 作 李靑田 畵



七、七人身勢 (十七)

그날밤 혜숙모친은 딸을 앞에 불러앉히고 온자한낯으로 서도령파의 일을 무러보앗다.

혜숙이는 얼골이 새빨애저서 못난소리만 마치지거리며 한동안 무엇을 몰라하는것을 보고 모친은

「어미보기가 이 그러냐 입에 올려 떠자시에게 누가하는 것도 뭐 낫이 오랫지는아니하마는 다시생각하면 어미사수사이에 무슨 숨길 일이 잇겟니 너머 거허 수건에 다 생각해봐라 우리사이에 무가잇너냐 내가 너를 아기를 자식경험으로 생각하고 너역시 나를 아비이겸어미로 생각하는데 가아니냐 더구나 혼인대사라 긴 사람의 평생대사로 잣지우지하는 대사이니 부끄럽다고 속에 잇는말을 아니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하는 수용이잇느냐 이어미는 너를 귀여워하기를 미상불 눈에 집어 너허도 아푼줄도 모를지경이아니냐 이어미의 정경을 생각허고 그저 속에잇는대로 하나도 기우지말고 말을해라 만일에 네가 어떤생각으로 이고독허여미를 속인다면 나는 뉘를 믿고살겟느냐 당장이라도 죽어버려야지 응 아간」

하고 혜숙모친은 자기말에 슬퍼저서 나루들하엿다。혜숙역시 인자한 어머니가 눈물로써 이르는 말에 눈자위가 확근하며 눈물이 핑돌아 떠러젓다.

아버지 기세후에 오늘까지 이십팔을 바리어가는것도 어머니의 덕이오 자기가 오늘까지 치운것 더운것을 모르고 자라나것도 오즉 어머니의 덕이 아니나 떡자식 앞에 애걸하다싶이하는 어머니의 애자정리를 생각할때 혜숙은 감격의눈물을 흘리지 안을수없엇다.

「어머니 죽을때라 잘못햇어요」

하고 혜숙은 그자리에 푹 업데어서 늣기어울엇다。모친은 깜짝놀라서

「이애가 이게 무슨짓야」

하고 등을 씨다듬어주며

「아기 우지마라 응 내가 한말이 너머 파햇더나 파햇다도 너를구하여거서 하는말이지 아속히 여기지마라 우지마러 아간」

하고 모친은 지금 당장에 느끼게 되는 서름보다도 가슴에 쌓이고 쌓여잇던 묵은 서름이 양올라 쏘다저나와서 말의등위에 눈물을 뚝 흘렷다。

「아가 우지마라 네가 무슨짓을 햇기어던 천륜이야 없어지랴 언제든지 내딸혜숙이가 아니냐 당하는 지내일을 그대로말하여다 조금도 혐의어서 말이나해봐라」

그래도 혜숙이는 어깨만 추시머리며 느끼고 잇을뿐이엇다 보천근지 살기은 무겁게 씻고나서

「앗가도 고순네 어머니가 와서 나더러 허구많이잇다마는 그 도령하구 언제부터 보게되엇니 이런말이 나가게 무서워마는 너 이어 정 때문 그러하지안케 어서 말해봐라」

「고순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허섯어요」

혜숙이는 고개를 들고 차마 어머니의 얼굴 바로 바라볼수 없엇더니 외면을하고 그대답하였으며 이러케 되물엇다.

「그이야긴 내가 벌써 갓을때에 마낫다고 허무구나 그말이 틀리지안니」

혜숙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랫거던 이것아 어미헌데 그럼이야기가 실허지 그동안이 고순네어머니헌테 말듯허게까지 든단말이냐」

「그래두 어떠케 그런말을 어머니께 해요」

「어면 어떠단말이냐 부끄럽다고 아니허구잇다가 나중에 알게되면 그이나 더부끄러운노릇이냐 하여를 기왕 된일이야 어찌허겟느냐마는 내생각에 어떠허나 그 도령에게 평양을 할기면 여한이 업겟것갈으냐」

혜숙이는 얼골이 새빨애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모대답이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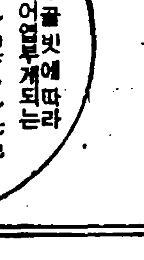
「이것아 시언스럽게 말을 좀해라 어미앞에서 저러케 부끄러워하는것이 남의집 도령허구는 어떠케 수작을 햇단말이냐」

「아이 어머니도」

하고 몸을 비꼬으며 어양을 부린다.

「글세 사리가 그렇치 안흐냐 기왕 된일을 남부끄럽다 허기도 하다마는 글세 수체 처녀가 어찌자고 남의집도령의 말대스구를 햇단말이냐 말이나 가루크지 그도령이 집잔허집 도령이니까말이지 만일에 보잘것업고 불하무식한 자식이엇드면 남이 너의행실을 욕허드라도 무슨말로 변명을할수 잇엇겟니 다음에야 그런일이 잇을리도없지마는 행여 헛되이 몸을 굽히지 말게 마려라 여자란 처신한번 허기가 매우어려우니어라」

하고 모친은 온자한 언사중에도 범할수없는 위엄을 가추어 혜숙에게 훈계를 하엿다。



朝鮮社會運動史上의新記錄

神出鬼沒의活動內容

共產主義大秘密結社

全南運動者協議會 事件今日送局

前後八個月間取調、二百四十七名送致

總檢擧 五百餘名의 多數

【光州支局金容煥發信】 전라남도경찰부고등파에서는 공산주의자의 비밀결사인 전남운동협의회가 조직되어가지고 그지도하에 적색농민조합이 그내각군에 계속적으로 조직되는중에 잇다는 사실을 지난一월중순에 발견하야 강진(康津) 해남(海南) 완도(莞島) 장흥(長興) 영암(靈巖)등 五개군의 경찰서와 제휴하여가지고 그관계자五백여명을 검거하야 극비밀리에 엄중취조중이라고함은 본지에 누보하엿거니와 그런데 총검거자 五백四명중 二백四十七명을 금(九月九日)일요일에 이르러 치안유지법(治維法)위반 출판법(出版法)위반등의 죄명으로 목포검사국(木浦檢事局)에 송치하엿다는데 김홍배(金洪培)이하 五十七명은 신체구속 이두성(李斗聲)이하 一백八十명은 불구속 박모(朴某)이하十명은 미체포라고한다。

表面엔教化運動標榜코 最初엔赤色勞組織

赤色農村班五十三個를結成코 成道庵에서部署決定

비밀결사인 전남운동협의회가 조직되기까지의 경로를 보면 사하여 보건대 김홍배(金洪培)는 황동윤(黃同允)은 명치대학전문부에서, 황동윤은 동경반제동맹에서 각각 활약하고 잇던 소화七년경에 전남운동협의회 사이에 연락이 되엇으며 그해 여름에 그재건운동까지 검거되어 버렷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각각 전남운동이 여지없이 침체되어 버린것을 위하야 남어지에 김홍배는 그고향인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海南郡北平面梨津里)에, 황동윤은 역시 그고향인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莞島郡郡外面黃津里)에 돌아와잇다가 그리하야 김홍배는 오문현(吳文鉉) 김아기(金阿其) 김영식(金永植) 오홍택(吳洪鐸)등으로 더부러 이론투쟁을 거듭하여 나오다가 역시 조선 운동은 농어산촌(農漁山村)에 주력하지 아니할수 없는 현상이라고 작정하엿다 그러므로 해남(海南)과 완도(莞島)는 바다를 사이에 두엇다고하나 그러나 멀지아니한 방지지인까닭 피차의 행동으로인하야 무언중에 서로이동하게되엇다고한다。 그러므로 소화八년을 잡어드러서는 김홍배와 황동윤 두사람이 비밀리에 중중합의하야 전남운동의 최고기관을 조직하기로 이 합치 하엿으므로 소화八년五월 十四일에는 해남군 북평면성도암(海南北平面成道庵)이라는 절에 회합하야 전남운동협의회를 조직하엿다는데 그부서는 여좌하다고한다。

◇全南運動協議會의部署
▲事務部金洪培▲組織部吳文鉉▲調査部黃同允▲教援部李基弘

◇機關紙發行

전남운동협의회에서는 중앙기관지를 [illegible]

現職警官과 面書記等加擔

夜警團도組織活動

소화八년五월에 결사를 조직한 이후 검거를 당하게 되던 때까지 불과 九개월동안에 그들의 전술과 활동에는 놀라지 아니할수없엇다。 비상하엿으니 적색농민조합농촌반(赤色農民組合農村班)五十三개소를 결성하엿고 十八개소는 결성준비중에 잇엇다고하며 표면으로는 온건한 지방교화단체인듯하나 그러나 그이면에는 지주(地主)와 자본벌(資本閥)의 세력을 떠난동시에 농민(農民)과 노동자(勞働者)의 이익을 절대로 옹호하야 위력(威力)을 가지게됨 야경단(夜警團)二十六개를 조직하엿으며 노동야학(勞働夜學) 농민야학(農民夜學)二十八개소를 설립하야 문맹(文盲)[illegible]

康津、海南事件으로 五郡에서檢擧開始

農民鬪爭으로結社綻露

전남운동협의회와 적색농민조합이 경찰에 발각되어 검거되기는 소화九년一월중순에 강진군(康津郡)내의 노동야학(勞働夜學)에서 공산주의사상을 주입하엿다는 사실이 경찰에 탐로되어 강진경찰서에서는 윤가현(尹可鉉) 마성만(馬成萬)외 十여명 청년을 검거하여다가 엄중히 취조하고 잇엇다고 한다。 그런데 역시 一월하순경에 해남(海南)경찰서에서는 북평면 해남조합(北平面海南組合)분규사건으로 김홍배(金洪培) 오문현(吳文鉉)등을 검거하는 동시에 그가택을 수색하엿는바 그결과 중대한 기밀문서가 나오엇다고 한다。 이에 해남경찰은 즉시 도경찰부의 지휘를 받어가지고 二월중순에는 강진 해남 장흥 영암 완도등 五개군에서 一제히 검거를 개시하엿다고한다。

地主代表로登場 小作爭議를解決

金洪培의嶄新한戰術

전남운동협의회에서 지도하여 오던 농민운동은 조선적이근동사상에서 그유례를 볼수없을만큼 농민의 승리로서 해결되엇다고한다。 그전술은 이러하엿다고한다。 총지도자 김홍배(金洪培)는 자신이 二백여석을 추수하는 부호이면서 동시에 무동장의 사음(舍音)까지 겸하여잇는관계상 전남운동협의회를 통하야 농민을 위하야 소작쟁의(小作爭議)를 일으키도록 지도하여가지고 그이면에서 작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엇다。 김홍배는 그석상에서 일반지주를 대표하야 소작인들의 모든요구조건을 수락하엿다고 한다 그러므로 一반지주측에서는 거지미년것으로 옹종하지아니할수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엇다고 한다。

被告經歷

黃同允

완도군군외면황진리(莞島郡郡外面黃津里)에서 출생하야 [illegible] 모사립학교에서교편을 잡고 [illegible]

主要人物―右側上으로 黃同允、李基弘、王在一、劉載[illegible]、吳文鉉―右側上으로―尹可鉉、鄭辛又、金斗讚

大興寺松林中에서 第一次全體會議開催

◇八大「슬로간」도制定

전남운동협의회를 해남성도암에서 결사하고 그부서까지 작정하엿다고함은 위에 보도한바이거니와 그러면 그들의 지도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농어산촌(農漁山村)의 토지겸영문제, 부역문제 등을 제시하고 운동방침서(運動方針書)를 작성하기로하고 해산하엿다고한다 그후 소화八년八월 十八일에는 제一회전체회의를 해남군삼산면 대흥사(海南郡三山面大興寺)에서 개최하고 적색농민조합 건설을 확정하야 그지도하에 각면과 부락에 농민반(農民班)등을 결성케하는 동시에 청년층은 청년반에 소년들은 소년반에 부인들은 부인반에 가입케한다는것을 결정하엿다고 한다。

一、農民會社의土地를農民에게
二、[illegible]
三、小作料는[illegible]
四、棉花[illegible]
五、戶稅及其他公課稅의引下要求
六、奸商과高利貸金業者의排擊
七、靑年에게는 ××[illegible] ○○主義 政治에 反對하야
八、少年에게는 郊外散步 演藝會를 開催하야 反宗敎 反封建을 鼓吹하는同時에 ○○主義 精神을 注入할事

主謀者 金洪培와

巡査 吳洪鐸의 活動

전남운동협의회의 총지도자인 김홍배(金洪培)와 현직순사 오홍택(吳洪鐸)의 경력과 활동하던내용을 조사하여보면 이러하다고한다。

富豪子弟로 左翼運動의猛將

反帝同盟에加入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海南郡北平面梨津里)는 一개어촌(漁村)에 불과하나 그러나 옛날한국시대에는 세관(稅關)의 소재지엿던만큼 一반적으로 인지(人智)가 상당히 발달된곳이다。 그런데 김홍배는 그중에서도 부호가정에 태어나서 그리고 동리에 잇는 남창의숙(南倉義塾)을 졸업하고 목포영흥학교(木浦永興學校)와 경성중동학교(京城中東學校)를 거쳐서 소화 六년에는 동지사중학교(同志社中學校)를 졸업하고 다시 동경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법과(法科)에 입학하야 공부하던중 반제동맹(反帝同盟)에 가입하야 맹렬히 활동하다가 소화 七년봄에 전남노동협의회 사건이 발각되어 전반적으로 검거되는것을 보고 조선내지의 적의운동을 목적하고 귀국하야 그와같이 활동하엿다고 한다。

生活問題로 方◇向◇轉◇轉

巡査生活二個月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海南郡山二面相公里)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서 十八세되던해에 [illegible] 졸업하엿으나 원체 집이 가난한 까닭으로 자신이 노동하며 밤이면 중학강의록(中學講義錄)을 독서하여 나왓으므로 그의지식정도는 의외에 크고 부잣집 동무들에게 비하야 못지아니하엿다고한다。 그러므로 그는 멋멋동모들과같이 노동야학을 설립하야 수년동안에 수백명의 농민들을 교양하여오던 [illegible] 전남운동협의회에 가담하야 맹렬히 활동하엿으나 [illegible] 소화八년八월에는 [illegible] 五개월간의 교습을 마치고 十二월에 강진경찰서(康津)에 근무하게 되어 [illegible] 순사가 되엇다。 소화九년 二월중순에는 그전에 관계하엿던 사건이 발각되어 검거되는 동시에 순사는 해직되엇다고한다。

主謀者金洪培

區長과振興會長으로

官憲과도提携活動

[illegible]

戰必勝、攻必取의戰術

[illegible]

寫眞은 (上)結社를組織한成道庵(中)秘密結社를마치고晩餐을한大興寺(下)頭倫山密林中第一次全體會議場所

關係者氏名住所

▲總檢擧者數
▲檢事局送致者數
▲身體拘束者
▲不拘束送致者
▲未逮捕者

本籍	現住所	職業	姓名(年齡)
莞島郡郡外面黃津里	同上	[illegible]	黃同允(二[illegible])
同 古今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郡外面新[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illegible]
莞島郡[illegible]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郡外面大也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黃津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古今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山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海南郡北平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金洪培([illegible])
同 [illegible]山里	同上	[illegible]	吳文鉉([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金[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金永[illegible]
莞島郡古今面[illegible]里	海南郡北平面[illegible]里	[illegible]	[illegible]
海南郡北平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西[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朴大[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金[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朴[illegible]
同 山二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康津郡大口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川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兵營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城[illegible]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莞島郡[illegible]面[illegible]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長興郡[illegible]面[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長興郡[illegible]里	同上	[illegible]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